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6. 7. 21.(화)

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

<보도내용>

- 2026.7.21.(화) 한겨레는 「기획처, 교육부에 교부금 개편 구체안 전달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의 20.79%를 시·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,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026.7.21.(화) 동아일보는 「기획처 “교육교부금, 내국세의 20.79% 연동 폐지” 교육부에 제시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교육교부금)을 내국세의 20.79%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026.7.21.(화) 매일경제는 「기획예산처, 교부금 ‘내국세 20.79%’ 폐지안 교육부에 전달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,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-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구체적인 개편 방향 및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책임자	과 장	권삼수 (044-203-66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산 (jspark2492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민형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성철 (yg1102@korea.kr)

